

출장보고서

1. 출장 개요

목적:

1. OECD의 EPC (Economic Policy Committee)회의 참석
2. EPC(Economic Policy Committee)는 OECD 산하 위원회로서 세계경제 전망과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을 검토·평가하는 회의

출장지: 프랑스 파리

출장자: 송인호 부연구위원

출장 동행자: 기획재정부(경제정책국장), 한국은행(조사부 부국장)

기간: 2012년 5월 8일~12일 (4박 5일)

○ 출장 일정

- * 5월 8일(화): 출국 (인천 → 파리)
- * 5월 9일(수): OECD EPC 회의를 위한 사전 미팅
- * 5월 10일(목) ~ 11일(금) : OECD EPC 회의
- * 5월 11일(금) : 귀국

2. 출장 활동 내역

미국관련 발언 및 답변 내용

-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지 (sustainability)못한 이유는 주택시장의 부진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음. 즉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전방위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원인 중의 하나가 소비 진작의 한 축인 주택시장이 잘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임.
- 한편에서 미국의 양적완화정책과 저금리로 인해 내구재소비의 회복 등 자동차 내수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로 전반적인 소비는 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- 실제로 주택가격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할 정도로 양의 방향을 지니고 있음. 현재의 양적완화정책으로 대차대조표상의 크기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킴에는 틀림없으나 은행의 모기지금리 경쟁성은 부족함. 이에 본인이 그 원인에 대한 제안
 - 1) 양적완화정책등 통화정책은 다만 노동시장의 연관성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과의 연계성에서도 찾아볼 필요가 있음.
 - 2) 통화정책이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세그먼트로 영향을 주는 이유는 아마 통화정책과 금융시장 특히 주택시장의 연계성에 메커니즘이 잘 작동되지 못하는 부분 즉 은행간 모기지시장 창출 (mortgage origination)능력이 저하되어 있음.
 - 3) 이에, 통화정책과 LTV간의 상호 트레이드오프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. LTV가 모기지 시장 전체에 통화정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에대한 메커니즘 분석이 통화시장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

○ 답변내용:

- 1 미국의 실질소득이 실제 양적완화등 저금리기조 정책에도 불구하고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.
- 1 가계의 수요 진작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있었음.
 - A. 미래의 경기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 위축
 - B. 미래의 소득에 대한 불안감 확산
 - C. 금융시장 특히 은행간 모기지시장의 활성화 미진 원인으로 실제 모기지의 경쟁 시장 부진이 지목
 - D. 가계부채비율이 문제가 됨
 - E. 이에는 주택가격의 부진이 최대 원인임.
 - F. 주택가격의 부진은 실제 가계소비의 부진을 초래하고 있음.
 - G. 통화정책과 LTV와의 연계성은 실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. 이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통화정책과 LTV간의 Tradeoff 및 영향분석을 통해 정책적 조율을 고려

□ 일본관련 발언 및 답변 내용

- 일본의 경제 전반의 아웃룩(Outlook)중 세가지 부분을 을 간략히 고찰해 보면
 - 1) 가계소비의 견고한 회복 징후

2) 수출의 회복

3) 전력생산 부족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 방안

○ 그러나 위의 낙관적인 부분에 부정적 부분 (bad scenario)를 고려해보면

1) 전체전력생산필요의 30%를 차지하는 원자력의 일괄적 정지 (shutdown)는 작은 규모가 아님. 전력생산의 부족을 채우기위한 생산 감축 그리고 에너지 수입등이 함께 작용하여 2%의 경제성장률 예측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. 생산감축은 생산성의 문제로 에너지 수입은 무역수지 악화로 연계되기때문임.

2) 또한 수출의 회복도 미국시장의 차에 대한 수요 진작이 주요 원인으로 수출시장의 회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. 즉 일본수출이 미국시장의 경기회복과 차의 수요에 의존하는 의존성이 제대로 다루어 지지 않는다면 수출시장의 회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성급함이 있음.

3) 최근의 양적완화정책과 세수확보를 위한 소득세 및 소비세 조정은 상호간의 관련성을 비추어볼 때 대립성 (contradiction)이 존재할 수 있음. 특히 세수확보 차원에서의 소득세 및 소비세조정은 경제성장을 지체할 수 있는 소비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. 이에대한 대립성의 분석이 바탕이되어 정책적 조화를 고려해야함을 제안

○ 답변내용:

1 전력생산을 실제로 조정하기 시작하였음: 2011년 기준 원자력 전력생산이 전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4%선이고 이는 지속적으로 줄어나갈 제어능력이 있음. ----- 그러나 최근의 일괄적 원자력공장 정지에 대한 답변이 부족

1 양적완화정책과 더불어 법인세의 인하가 일본 정책임. 물론 최근 있었던 잠정적 법인세 인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잠정적 (temporary)인 것으로 곧 일본의 법인세 완화기조에는 문제가 없음.

□ 라운드별 진행은 별첨 참조